

익산시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상황관리체제 TF팀 구축... 무더위쉼터·그늘막 확대,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운영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에 나선다.

지난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부서와 함께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해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과정을 팀장으로 상황관리 TF팀을 구성해 각종 지원에 나서는 등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다.

우선 시는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농협·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46개, 전북은행 9개 지점을 추가로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보건지소 등 모두 484곳의 무더위쉼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섬과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도 10곳을 추가로 설치해 111곳에서 운영되며 폭염특보가 발효됐을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형 열을 도 비치는 한편 2개 구간에 노면

살수차를 동원해 기존 상수를 차단할 예정이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도 투입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 체크와 안부 전화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농·축산 분야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폭염으로 인해 가축이 폐사했을 경우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6억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자가발

전기와 제빙기, 안개분무기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80여 농가에 가축 폭염스트레스 완화제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교육, 현장지도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발 빠른 준비와 체계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산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산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고 반려견 유실 및 유기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은 등록대행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는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1차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1차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홍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동물보호단체와 협조해 공공장소, 유원지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시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현재 군산시 동물보호 마릿수는 4302마리(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정훈 기자

'일자리 구하고 희망 찾고' 취업박람회 개최

군산시,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전북산단 전북지역본부서 성황리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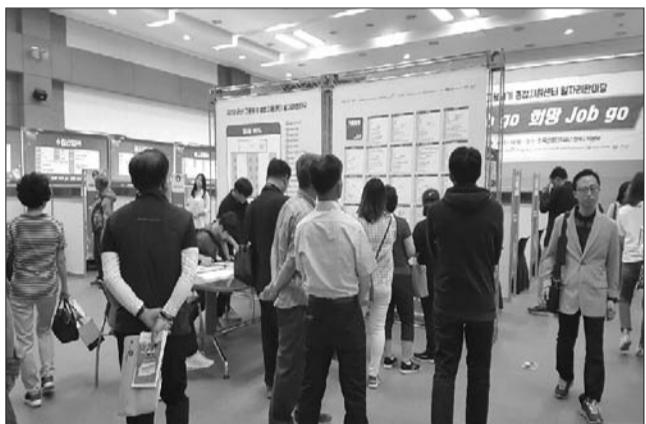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는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전북산업단지공단전북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내일 job go, 희망 job go 일자리 한마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한마당 행사는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7개 유관기관들이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대우식품, (주)카라, 존스미디어(주), 에스피씨 삼립, (주)휴먼컴퓨터, 하이호경금속(주) 등 직접참여 18개사와 간접참여 4개사 포함 22개 기업들과 주요 기관장 및 구직자 등 약 3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장에서는 현장채용 또는 간접채용을 위해 1대 1면접이 이뤄졌으며 서류 접수를 통한 당일 면접 및 2차 면접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심사 후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는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또한 특별관에서는 입사지원컨설팅, 일자리 이동상담실,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사전접수), VR모의면접 및 AR가상체험실, 퍼스널컬러 및 타로진로상담

등 구직자들의 현장면접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체험행사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5개 구간, 78세대 선정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도시가스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해 공급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19일 열린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동산동 성광순복음교회 주변 등 5개 구간, 78세대(단독·다세대·연립주택·읍면지역 아파트 등)를 사업 보조금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주민분담금의 50%이내에서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신청자를 접수(전북에너지서비스 ☎ 830-8556)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는 앞으로 도시가스사, 시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행정절차 이행 후 7월부터 공급관 공사를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해 서민 경제 생활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2018년 말 기준 76.6%로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설비 보조금 지원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해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익산시 '희망의 집 고쳐주기' 활기

199가구 대상 10월 말까지 공사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시는 올해 29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받은 19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41가구에 대해 구조안전과 지붕보수, 벽체, 단열 및 창호, 보일러 등을 실측 조사

해 공사를 완료했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선정했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포함해 7억9,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가구당 400만원 이내에서 벽체와 에너지 단열공사 등을 추진한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익산시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익산=정인천 기자

원광대 HK+지역인문학센터, 손으로 빛는 인문학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인문강좌 '손으로 빛는 인문학'을 진행한다.

'손으로 빛는 인문학'은 흙이라는 자연 재료와 교감을 통한 자기표현으로 인문학적 감성과 정신을 경험하기 위한 것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원광대 도서관 1층 물레성형실에서 열린다.

강의는 원광대 미술과 이화준 교수의 '도자의 이해: 물레 사용법 시범 및 체험'을 시작으로 물레를 통한 옹기 성형체험, 물컵, 소형화분 등 일상

생활을 위한 옹기제작, 문패, 가훈 등 명패 만들기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인문학센터장 강연호 교수는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예공예를 통해 신선한 인문학적 감성이 전달되면 좋겠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원광대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은 인문학플러스(HK+) 사업으로 전북도의 인문자산을 기반으로 한 인문강좌·체험·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63-850-7293)로 하면 된다. /익산=정인천 기자

전국 남녀궁도승단대회 익산서 개최

전국 남녀궁도승단대회가 익산 건덕정에서 20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의 궁도인 2,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대한궁도협회(회장 박종인)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궁도협회(회장 박수연)와 익산시궁도협회(회

장 김우성)가 공동 주관해 궁도의 저변확대와 전통무예 계승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회일정 첫날인 20일 개인전 사두대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전국의 380여개의 정들이 자웅을 겨루는 단체전 사정대회가 펼쳐진다. 21일에는 박종인 대한궁도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궁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덕정에서 개최식이 열렸으며 이어 승단대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경기 방식은 사두대회는 참가 선수 당 5순(25발)씩, 사정대회는 5명이 1팀으로 출전해 개인별 1순(5발)씩 총 5순(25발)을 발사한다. 승단대회는 9순(45발)씩 발사해 4단에서 9단까지 단증을 부여받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